

# 하나님의 심판 경고

스바냐 3:1-8

## 【인도자를 위한 예화】

세계적으로 골프 천재라고 불리던 타이거 우즈가 20세에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의 곁을 지키던 코치는 기고만장해진 우즈의 좋지 못한 스윙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습관이 된 우즈의 스윙 자세를 바꾸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은 우승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인 우즈는 눈앞의 우승 생각이 접고, 더 나은 스윙 자세를 잡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교정 훈련을 무사히 견뎌 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회에서 무려 열 차례나 우승했습니다. 그는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 않고 거두기만 바라는 자를 향해 게으르고 악한 종이며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 것마저 빼앗아 열심히 장사해 두 배로 남긴 충성된 종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힘들어도 고쳐야 합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행복의 길로 들어서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책망받을 때는 힘들었지만, 이후 달라진 나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본문 읽기】 스바냐 3:1-8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손 왕족 출신으로, 요시아왕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고 선포하며, 심판의 임박성과 신속성을 경고합니다(1:14). 그날은 마치 ‘전쟁의 날’처럼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도성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입니다(1:15~16).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넘어 사방에 있는 여러 나라에도 임할 것입니다(2:4~15).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훼방하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언급하면서 지도자들의 불의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3~4절).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고 계속 등을 돌렸습니다(2절). 본문에 언급되는 지도자 네 그룹 중 방백과 재판장은 정치 지도자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도성’(1절), 즉 예루살렘의 부패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직결됩니다. 방백과 재판장은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수탈하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4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을 일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질투의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한다는 기억해야 합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예루살렘성이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이 되어 하나님 심판을 자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4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가까이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탐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성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으로 전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훈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임을 보여 줍니다.

특히 백성을 대표하는 정치·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은 예루살렘에 저주를 불러온 원인입니다. 백성을 돌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사자와 이리처럼 백성을 잡아먹고 물어뜯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하나님

의 뜻을 전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의 죄는 이미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 아들들의 행위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삼상 2:22). 또한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착복하는 죄악도 자행되었습니다(미 3:11). 결국 예루살렘성은 죄악으로 물들어 의인을 찾을 수 없고, 속이고 뺏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다 정치·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함이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양 떼를 구덩이와 맹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습니다.

## 적용과 나눔 I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나는 얼마나 기도하나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은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어느 국가든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심하게 부패하는 이들이 바로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스바냐는 이런 지도층의 부패와 부재를 유다가 당면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가의 위기와 지도자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로 매우 바쁜 공직자였습니다(단 6:3).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그는 시간을 들여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단 6:10).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 관찰과 묵상 II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7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음으로써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죄악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면, 형벌을 작정하셨더라도 거할 곳을 없애지는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멸망이 아닌 돌이킴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5절).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그들의 영적 무감각을 지적하고 경계하셨습니다(렘 25:4; 35:15). 유다 백성은 열국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망대를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 거리를 텅 비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거민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6절). 이는 열국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악을 범한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에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약속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지런히 죄를 지었습니다(7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유다에게 남겨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 적용과 나눔 II

**죄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요?**

운동선수들에게 시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식단 관리, 스케줄 관리, 컨디션 관리, 이미지 트레이닝 등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신경 쓰며 시합 날을 위해 매일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 마음과 귀를 열고 있다면,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위해 평소 훈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등 가장 기본적인 경건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건 훈련을 중요시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확성기처럼 크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